

극단 얼·아리 '발톱을 깎아도'를 보고나서

웃음으로 버무린 고령화 문제 웃고 있어도 마음이 짠하다

지난해 열린 제32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 연출상(양정인) 등 3관왕을 차지했던 극단 얼·아리의 '발톱을 깎아도'가 광주 연극팬들을 만나고 있다. 6월 17일(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5시)까지 전남대 정문 앞 씨디아트홀.

'발톱을 깎아도'는 극단 시민의 '소작지'(제1회 전국연극제)와 극단 진달래 피네의 '취선록'(제16회 전국연극제)에 이어 16년만에 광주 연극계에 대통령상을 안긴 작품이다.

공연 첫날인 지난 15일 작품이 상연되는 소극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가족 단위 관객들도 많았고, 특히 젊은 관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박숙자씨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발톱을 깎아도'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담백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지면서 작품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있다. 실험적이고 기발한 작품을 기대한 이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연출과 작품 구성일 수 있지만 크게 기교 부리지 않은 점이 오히려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하루종일 티격태격하는 노부부 대우와 순애. 순애는 귀가 잘 안 들리지 않고 하리와 관절도 좋지 않다. 대우가 고물을 주워 생계를 유지하지만 4남매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초수급자 지정에서도 계속 떨어진다.

대우는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순애를 맡기고 고물을 팔기 위해 요양사 방문이 가능한지 심사를 받기로 한다. 행여 심사에 떨어질까봐 대우는 순애의 걸음걸이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을 과장되게 연출하기 위해 순애를 연습시킨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노인문제를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웃음과 버무려 내 관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지만 결국 '웃고 있어도 마음이 아픈' 상황들은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극의 막바지 남편에게 "천천히 가입시다"라고 읊조리는 순애의 마음이 짠하다.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노년의 문제,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4남매의 사연 등은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등 3관왕
노희철씨 사투리 연기 등 압권
'소극장 버전' 관객과 호흡 좋지만
무대 활용·동선 제약 등 아쉬워
6월 17일까지 금~일 씨디아트홀**

무엇보다 전국연극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던 노희철씨의 연기가 압권이다. 첫 등장에서부터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는 질박한 전라도 사투리와 코믹 연기로 무대를 장악한다. 때론 고집을 부리고 툭툭거리 는 것으로 아내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 세상 온갖 풍파를 겪은 노인의 모습이 현실적이며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는 연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여기에 실제 배우이기도 한 순애역의 정경아씨 역시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다.

선풍기, 시계, TV 등 극중에 사용된 소품들은 지난해 연극제를 준비하던 중 세상을 떠난 노희철씨 어머니의 유품이 그대로 사용돼 두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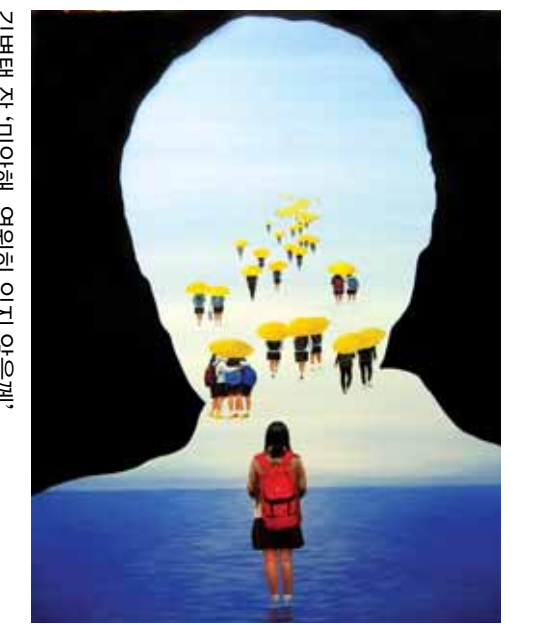
여기에 극의 긴장감을 해소하며 웃음을 선사하는 할배 역의 이현, 통장역의 김경숙, 막내딸 역의 이지은 등도 제역할을 다한다.

표정 하나하나, 몸동작 하나까지 배우들의 연기를 밀착해서 관람할 수 있는 건 소극장 공연의 장점이다. 하지만 이번에 소극장 버전으로 옮겨가면서 무대 활용과 배우들의 동선, 조명 등에서 제약이 받아 원 작품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

티켓 가격 1만 5000원. 문의 010-2659-699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태규 작 '2014년 잊지않겠습니다'



김병택 작 '미안해 영원히 잊지않을게'

甲의 부당에도 乙 밥줄 위해 버틴다

광주민미협 '오월전'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민미협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5·18민중항쟁 35주년을 맞아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살아 가기-갑? 을'을 주제로 제28회 오월전을 연다.

이번 오월전에서는 '사람에 대한 무례함'에서 비롯된 '갑(甲)'의 부당행위에 '밥줄'이 끊기지 않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버티는 '을(乙)'의 '고통'스러운 삶을 재조

명했다. 참여 작가는 강선호, 강일호, 김병택, 노여운, 류기정, 박태규, 조정태, 조현, 최병진, 최용석, 위재환 등 모두 17명이다.

김병택 작가는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세월호 문제와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며 서로를 위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강선호 작가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

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형상화했고, 박태규 작가의 작품은 진실을 밝히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열정과 다짐을 보여준다.

최재덕 작가는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있는 세월호 희생자 9명과 상처받은 일반시민들의 마음을 조각한 설치작품을 통해 우리 삶의 존재가치를 되묻는다. 문의 062-222-8053. /김경민기자 kki@

한중 합작영화 플랫폼 '광주국제영화제'

'잃어버린 바이올린' '노랑대해전' 제작 등 논의

광주국제영화제가 한중 합작 영화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국제영화제는 지난 15일 전남대학교 컨벤션 홀에서 한국과 중국 영화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한중 영화 포럼'을 개최, '잃어버린 바이올린'과 '노랑대해전' 제작 등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광주영화제가 추진해온 '잃어버린 바이올린'은 정음성극음악제에 공연하려 온 중국 바이올리니스트와 한국의 젊은 귀농인의 수재화같은 러브스토리를 그린 작품이다. 정음성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이 그의 음악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중국의 아류브커뮤니케이션과 한국의 아시아문화협동조합이 제작사로 참여하며 총제작비 30억원 중 중국이 8억, 광주시가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월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해 내

년 5월 완성될 예정이며 광주·전남 곳곳과 중국 서안·연안 등에서 촬영이 이뤄진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측이 먼저 제안한 대형 사극 '노랑대해전' 합작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51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노랑대해전'은 중국이 70%를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중합작이 진행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로케이션과 광주 CGI센터를 활용한 후반 공동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밖에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영화 산업, 동반 성장 가능한가'를 주제로 상호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영상산업의 양국 상호교류와 협력적 기반 조성,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반 제작 지원 참가자 모집

광주음악창작소 31일까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용관) 광주음악창작소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뮤지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음반 제작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음반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최종 선발된 팀은 앨범 제작비(작사·작곡·편곡·연주·녹음·디자인·안무)와 앨범 홍보비(뮤직비디오·소케이스·기타 홍보물) 등 총 제작비의 80%까지,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총 사업비의 20% 이상 개인부담이 필요하다.

오는 6월9일 기획력, 음악성, 뮤지션 역량 등의 경연을 거쳐 6월1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된 팀들은 올해 안에 음반 발매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참가 지원은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전남인 개인 및 그룹에 한하며, 팝, 록, 포크, 재즈, 힙합, 크로스오버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장르에 걸쳐 모두 가능하다. 문의 062-654-3625. /김경민기자kki@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